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32화 부처님의 우안거

다음날, 수닷타(Sudatta)는 처남을 따라 시타바나(Sitavana, 寒林)로 붓다를 보기위해 갔다. 시타바나는 라즈기르성 밖에 위치한 쓸쓸한 묘지로서 시체를 화장한 후 갖다 버리는 상서롭지 못한 곳이라 한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부처님은 그곳에 홀로 앉아서 깊은 선정(禪定)에 들어 계셨다. 수닷타는 너무나도 성스러운 붓다의 모습에 크게 감격하여 두 손을 모아 잡고 그의 앞에 공손히 예배(禮拜)를 올렸다.

"제가 그동안 약간의 재산을 모으되 사람을 속인 일이 없었고, 또 모은 재산으로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복덕을 쌓았더니 오늘날 부처님을 뵐 수 있는 무상의 영광을 얻게 되었나이다. 붓다께서는 브라만과 달라서 저희들 같은 바이샤(Vaisya, 서민) 출신들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 받아들이신다고 들었사옵니다. 저는 수닷타라는 가하파티(Gahapati, 신흥자산가)입니다. 현재는 가나(Gana, 상공인 조합)의 슈레스틴(Sresthin, 회장직)으로 일하고 있사옵니다. 만약 저희들에게도 붓다를 모실 수 있는 영광을 주시오면 저의 모든 재산을 불전에 바치오리다.

"사람은 태어날때부터 귀천으로 신분이 갈라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모두 태어난 이후 각자의 능력에 따라 갈라지는 것뿐으로, 브라만의 후손이 계속 브라만으로 행세하는 것은 자기들만의 특수한 계급의 지위를 누리려는 술책인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동등하게 태어났으므로 각자 스스로 열심히 복덕을 쌓고 검소한 수행생활을 하며, 보시(Dana, 布施)와 지계(持戒)를 지킬 때 누구나 성불(成佛)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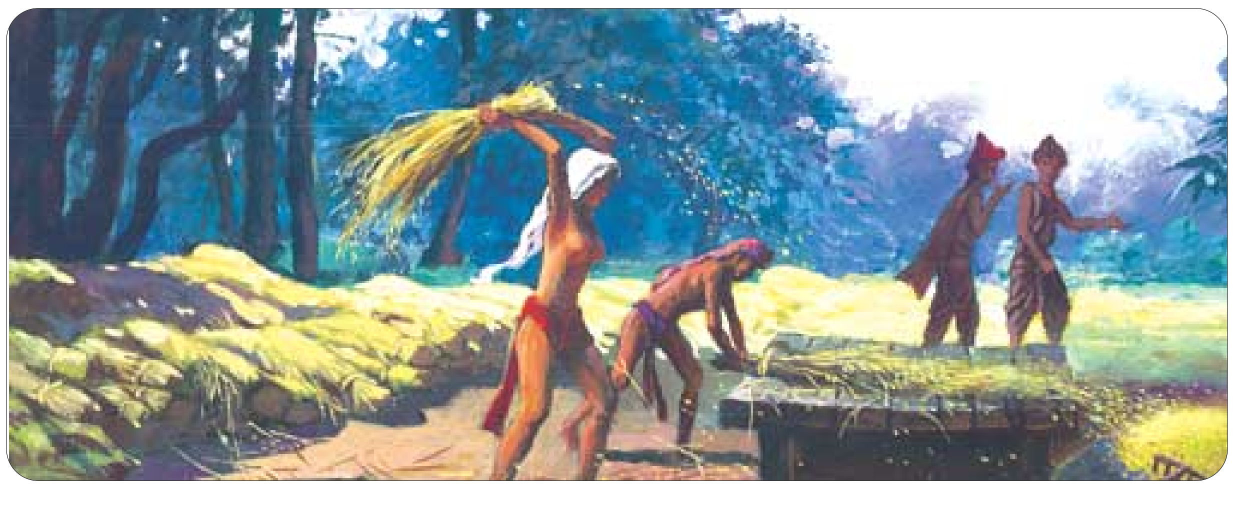
이때 수닷타는 바이샤(Vaisya) 출신으로도 성불할 수 있다는 붓다의 말씀에 크게 감동되었다. 당시 아리얀의 브라만교도가 지배하는 사회적 배경에서 브라만은 날 때부터 특수 계급으로서 모든 정신적, 종교적 세계는 그들만의 독점세력권 안에 있었다. 그 다음 크샤트리아(Ksatriya)계급 역시 왕족을 중심으로 한 귀족집단으로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절대적인 세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 밑에 비로소 바이샤 계급인 농민이나 상 · 공인 등 일반 백성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결국엔 크샤트리아 계급을 살찌우는 노동을 제공하는 격이어서 그 삶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고달프기만 하였다.

"나는 중생을 구하기 위하여 6년간의 고행을 이겨내고 드디어 깨달음을 얻어 붓다가 되었도다. 이제 법륜(法輪)을 굴려 누구나 성불의 기쁨을 맛보게 하려는 것인즉, 나의 법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귀천이 없어 사람이 누구나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믿으며 싸움과 미움과 질투가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너희들 재가신도들에 대한 설법의 목적이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갈길이고, 그 위에 자신의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법에 귀의하면 소승불교의 차원에서 수행을 쌓아야 하는 것이다."

"붓다의 그 말씀은 저희들 바이샤 계급이나 또 저희들보다 더 고통과 괴로움 속에 허덕이고 있는 수드라(Sudra, 노예계급)들에게 까지도 밝은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옵니다. 어서 그 깊고 오묘한 붓다의 진리를 들려주소서."

수닷타의 간절한 요청에 붓다는 우선 재가신자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설법을 들려주었다. 우선 보시(布施)와 지계(持戒)를 가르치고 그 과보(果報)에 의해 천상(天上)에 태어남을 가르쳤다. 이에 수닷타는 그 자리에서 붓다의 가르침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부처님의 설법이 너무도 높고 그 뜻이 오묘하여 저와 같이 미련한 사람도 가슴이 열리게 되었는데, 아직도 부처님이 이 세상에 실제로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사옵니다. 붓다께서는 다음 우안거(雨安居)에 교단과 함께 스라바스티로 와 주옵소서. 제가 붓다의 거처를 미리 마련해 놓겠사옵니다."

※우안거(雨安居, Varsa)란 승려들이 4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한 곳에 모여 외출을 금하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간동안 인도에는 많은 비가 오기 때문에 우(雨), 안거(安居)라 하는 것이다. 붓다가 많은 제자와 함께 머물 절을 따로 준비하지 않으면 붓다를 모시고 그의 설법을 들을 수 없기에 새로운 절을 지어 바치겠다고 수닷타는 결심하고 붓다께 말씀을 드린 것이다.

수닷타의 제의에 붓다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받아들였다. 수닷타는 붓다께 작별 인사를 올리고 라즈기르를 떠나 스라바스티로 되돌아가는 수십일 동안의 여행을 하면서, 그동안 그와 장사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동업조합원(Gana)들에게 머지않아 부처님이 통과하실 것이니 승원(僧園)을 만들고 정사를 세워 부처님의 여행길이 편하도록 보시 준비를 시켰다.

네팔 국경에 가까운 오우드(Oudh)는 그 옛날 아유타(Ayodhya)의 땅으로 불전에서는 '사케타(Saketa)'라 부르고 있다. 이 아유타는 바로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나오는 가야국의 시조 김수로왕과 최초의 국제 결혼을 한 보주태후(普州太侯) 허황옥(許黃玉)의 고향이다. 후일 아유타(阿踰陀)국이 불심(佛心)이 깊은 가야지방을 공격하자 역시 불교 신자였던 허황옥의 가족들이 인도를 탈출하여 희마리산을 넘어 결국 한국의 남해안까지 도달하였던 것이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50마일 쯤에 라프티강(Rapti)이 있고 그 왼쪽지역이 바로 사헤르 마헤트로 코살라(Kosala)의 수도 스라바스티(室羅筏)이다. 불전에서 흔히 사위성(舍衛城)으로 나타나는데 스라바스티(Sravasti)를 중국말로 옮길 때는 쉬라벌(室羅筏)로 표기하여 곧 가야국 옆 신라의 옛 이름 서라벌이 된다. 그 옛날에 있었던 인도와 한국간의 어떤 사건을 우리는 오늘도 알지 못해 답답할 뿐이다.